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이준희* · 이수경* · 고병희** · 송일병*

Abstract

A Study on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 of 『Dongyi Soose Bowon』 written in 1894

Lee Jun-hee* · Lee Su-kyung* · Koh Byung-hee** ·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compare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 of 『Dongyi Soose Bowon』 written in 1894(Old Edition(舊本)) with that of 『Dongyi Soose Bowon』 published in 1901(In Edition(印本)), and to find the idea of pathologic mechanism and classification of 'the Exterior and Interior disease'.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1. The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 of Soeumin and Soyangin in 'Old Edition(舊本)' was almost equal to that in 'In Edition(印本)'
2. In pathological mechanism of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 of Soeumin and Soyangin, 'The Exterior Disease' could be explained as the disease resulted from fight between 'Yang-chi(陽氣)(Hot-chi(熱氣))' of 'Thoracic vertebrae' and 'Yin-chi(陰氣)(Cold-chi(寒氣))' of 'Bladder' and 'The Interior Disease' between 'Hot-chi(熱氣)(Stomach-chi(胃氣))' of 'Stomach' and 'Cold-chi(寒氣)' of 'Large intestine'.
3. 'The Exterior Symptoms and Disease of the Exterior and the Interior Disease(表裏之表病)' could be explained as the disease occurring at the Branch portion(large portion(標)) by overcoming of Pathogenic factors but Vital energy still sufficient, and 'The Interior Symptoms and Disease of the Exterior and the Interior Disease(表裏之裏病)' occurring at Root portion(small portion(裏)) by invasion of Pathogenic factors and Vital energy almost exhausted.
4. In the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 of Taeumin, 'The Exterior Symptoms and Disease of the Exterior and the Interior Disease(表裏之表病)' in 'Old Edition(舊本)' were rearranged to 'The Exterior Disease' in 'In Edition(印本)', 'The Interior Symptoms and Disease of the Exterior and the Interior Disease(表裏之裏病)' to 'The Interior Disease'.
5. It was assumed that 'The Exterior and the Interior Disease' of Taeumin could be explained in relation between the exterior and the interior, based on the Healthy energy(保命之主) and the concept of the Branch and the Root portion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신저자: 이준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02-958-9233 E-mail)ssljh@hanmail.net

I. 緒論

東武 李濟馬는 58歲 때인 甲午年(1894年) 4月 13日까지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였고(甲午本/이하 舊本이라 칭함), 庚子年(1900년) 陰 9月 21日 64歲로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東醫壽世保元』을 改草하였다.(庚子本/이하 新本이라 칭함) 이후 『東醫壽世保元』은 辛丑年(1901년) 그의 門徒들에 의해 栗洞契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고(辛丑本/이하 印本이라 칭함), 그후 여러 차례의 출판이 이루어졌다.

최근에 발견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東武 李濟馬의 從曾孫인 李鎭胤의 子 李聖洙翁이 所藏해 오던 것으로, 李聖洙翁에 의하면 父親 李鎭胤씨가 1940년(庚辰年) 韓敏甲에게 舊本(甲午本)과 印本(辛丑本)을 대조하여 필사하도록 한 것이라 한다.¹⁾ 舊本, 新本, 印本の 내용을 比較하여 구본에만 있는 내용을 서술하였고, 新本이나 印本에도 나오는 내용은 그 소재만을 밝히고 생략되어 있다.

이에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근거로 印本의 내용과 比較하여 舊本의 내용을 복원하였고²⁾, 이를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내용 중 가장 변화가 많은 病證論 부분을 考察하여 舊本의 病理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 처방 변화의 분석은 본 글에서 생략하였으니, 이후의 연구를 기다리는 바이다.

II 本論

1. 少陰人病論

(1) 少陰人外感營病論

① 病證分類

桂枝湯證, 香蘇散證, 藿香正氣散證을 少陰人 外感表證으로 요약하였고, ‘發熱惡寒無汗者’와 ‘發熱惡

寒有汗者’를 구분하였다. 印本에서는 이를 ‘少陰人腎受熱表熱病’이라 칭하였고, 舊本에서처럼 汗의 有無로서 病證을 구분하게 되며, 특히 ‘汗不止 病不愈’한 亡陽末證에 대하여 人蔘桂枝附子湯 黃芪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의 治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太陽病下焦血證에 대해 其人如狂者를 ‘腎間陽氣因熱’이라 하였고, 少腹硬滿者를 ‘胸間胃氣怕寒’이라 하였는데, 이는 印本에서 각각 ‘腎陽因熱’과 ‘大腸怕寒’으로 병리적 용어설명에 변화를 보이게 된다.

舊本에서는 表病證을 크게 太陽病胃家實證과 陽明病脾約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印本에서 각각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정리되며 그 治方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제시되게 된다.

脾約病形證에 대해 ‘全體有汗人中不汗小便利’(身

		舊本		新本		印本	
卷之一	性命論	37	97	37	97	37	97
	四端論	26		26		26	
	擴充論	17		17		17	
	臟腑論	17		17		17	
卷之二	醫源論	6	221	9	218	9	218
	少陰表病論	60		52		52	
	少陰裏病論	64		67		67	
	泛論	27		24		24	
	經驗藥方	42		42		42	
	新定藥方	22	24	24			
卷之三	少陽表病論	31	143	45	139	45	133
	少陽裏病論	33		29		29	
	泛論	41		29		23	
	經驗藥方	19		19		19	
	新定藥方	19		17		17	
卷之四	太陰表病論	23	143	11	72	11	163
	太陰裏病論	10		36		36	
	經驗藥方	13				13	
	新定藥方	17		24		24	
	太陽外感病論	4				4	
	太陽內觸病論	11				11	
	經驗藥方	12				12	
	新定藥方	2				2	
廣濟說	25		25				
辨證論	26	1	25				
총계		604		526		611	

1)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刊行. 서울. 2000.

2)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에서 印本을 기준으로 복원하였으며, 舊本·新本·印本의 條文數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目錄에서는 舊本 卷之四의 條文數를 138개, 總條文數를 599개라 하였으나, 실제 계산에서 卷之四는 143개, 總條文數는 604개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目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熱汗自出不惡寒也 → 發熱汗多而惡寒也)을 主證으로 제시하고 ‘自汗出小便利者’와 ‘發熱汗多者’로 증상을 구분하여 治方을 제시하였다. 또한 胃家實病形證에 대해서는 ‘腹滿大便硬發狂’(身熱汗不出不惡寒也 → 澱然微汗出潮熱也)을 主證으로 제시하고 ‘不更衣內實大便難者’와 ‘澱然微汗出潮熱微喘者’로 증상을 구분하여 治方을 제시하였다.

한편, 太陽病 厥陰證을 太陽病危證이라 하여 太陽病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아 발생하는 病證으로 陽明病脾約證과는 다른 太陽病의 위험한 상태로 제시하였다.

② 病理說明

舊本에서는 人體의 臟腑論的 해석³⁾을 바탕으로 病證을 설명하고 있다. “膈氣衛外 膈氣者 陽氣也. 陽氣自膀胱而上升於膈膜也. 胃氣榮內 胃氣者 穀氣也. 穀氣自胃中而下達於大腸也. 膀胱之氣 受溫氣於大腸. 胃中之氣 禦外寒以膈膜⁴⁾이라 하고 “膀胱者 陰之分局也 陰氣者 寒氣也. 膈膜者 陽之分局也 陽氣者 熱氣也⁵⁾”라 하여 少陰人의 小한 部位인 胃(前)·膈(後)를 기본으로 大한 部位인 大腸(前)·膀胱(後)과의 關係를 氣의 升降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上下關係에 있어서는 人體의 後面部에서 膀胱에서 膈膜으로 上升하는 氣운을 膈氣·陽氣라 하였고, 前面部에서 胃中에서 大腸으로 下達하는 氣운을 胃氣·穀氣라 표현하였다. 특히 人體의 後面部인 膀胱과 膈膜을 각각 陰之分局·陽之分局이라 하고 陰氣는 寒氣, 陽氣는 熱氣로 설정하였다. 또한 膀胱을 表局으로 膈膜을 裏局이라 하여 上下之表裏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大한 臟局을 表局으로 小한 臟局을 裏局으로 설정한 것이다.⁶⁾ 前後關係에 있어서는 膀胱은 大腸으로부터 溫氣를 받는다고 하였고, 胃氣는 膈膜으로써 外寒을 물리쳐 낸다고 하였다. 이를 圖解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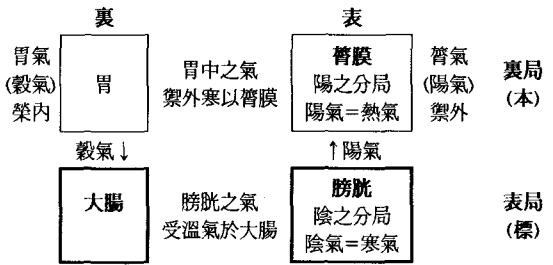


그림 1. 少陰人 病理機轉의 基本構造

表病은 人體 後面部에서 膈膜(裏局)의 陽氣(熱氣)와 膀胱(表局)의 陰氣(寒氣)간의 세력 싸움으로 설명되고 있다.

‘太陽病 下焦血證’은 膈間으로 올라가야 되는 陽氣가 表局인 膀胱을 뚫어내지 못하고 膀胱에 鬱縮한 證으로 설명하고 있으며⁷⁾, ‘其人如狂’의 증상은 膈間으로 올라와야 할 陽氣가 올라오지 못해 困熱한 것으로, ‘少腹硬滿’의 증상은 胸間의 胃氣가 내려가지 못해 怕寒한 것으로 설명하였다.⁸⁾

한편, 表病의 대강을 ‘鬱狂證’으로 요약되게 되는 ‘太陽病 胃家實證’과 ‘亡陽證’으로 요약되게 되는 ‘陽明病 脾約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胃家實病은 膈膜으로 올라와야 되는 陽氣가 상대적으로 강한 膀胱의 寒氣를 이겨내지 못하고 表局인 膀胱에 窮困縮伏하는 형세로 설명하고 있다.⁹⁾ 또한 太陽病 表證因在而小腹硬滿之病에서 胃家實로 이행되는 과정을 설명하기를 太陽膀胱으로부터 上升하는 陽氣가 膀胱의 寒氣를 떨쳐 내지 못하는 가운데 太陰大腸之氣 또한 通快하지 못하고 凝結하여 胃家實이 된다고 하여 表裏兼病의 단계임을 말하고 있다.¹⁰⁾ 胃家實病의 危證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3) 人體를 四焦로 나누어 前面部를 胃脘·胃·小腸·大腸으로, 後面部를 肺·脾·肝·腎(頭腦·背脊·腰脊·膀胱)으로 구분하였으며, 溫熱涼寒의 四氣를 배속하였다.

4)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55條

5)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32條

6)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外感膀胱病論』 “或曰吾子論少陰人胃家實脾約病曰, 膀胱者, 陰之分局而表局也. 膈膜者, 陽之分局而裏局也. 此則以背部上下分表裏者也.”

7)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13條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病下焦血證 卽少陰人膈間陽氣未能透表而鬱蓄膀胱之證也”

8)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12條

“其人如狂者, 膈間陽氣困熱也. 少腹硬滿者, 胸間胃氣怕寒也.”

9)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28條

“論曰 張仲景所論 胃家實病 卽少陰人 太陽病外證盡除而陽氣其力不能振寒 遂爲窮困縮伏之證也...”

胃家實病이 위험에 빠져 ‘澼然微汗出潮熱’하게 됨을 ‘表寒振發之力永渴’이라 하여 表局(膀胱)의 寒氣(陰氣)를 떨쳐 내는 힘이竭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¹⁾

脾約病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脾約病이 危證에 빠져 ‘發熱汗多而惡寒’하게 됨을 ‘裏熱撐支之勢已窮’이라 하여 裏局(膈膜)의 熱氣(陽氣)가 버티어 내는 힘이窮困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¹²⁾. 이는 少陰人의 保命之主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膈膜의 熱氣(陽氣)가 더욱 적어지고 꺾박받게 되는 형국임을 나타낸다.

太陽病과 陽明病을 比較함에 있어서, 膀胱表局에서 寒氣를 떨쳐 내는 陽氣가 不足하여 正邪相爭하게 되는데 以正犯邪하므로 惡寒하게 되나 惡寒不作하게 됨은 正己가 邪氣를 물리쳐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를 ‘太陽力屈之病’이라 하였다. 한편, 膈膜裏局에서 안으로 지켜 내는 陽氣가 부족하여 正邪相爭하게 되는데 以邪犯正하므로 煩熱이 있게 되나 煩熱虛張하게 됨은 邪氣가 正氣를 逼迫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를 ‘陽明勢孤之病’이라 하였다.¹³⁾

胃家實病과 脾約病을 比較하면 <표 1>과 같다. 少陰人에 있어 상대적으로 大한 膀胱(陰之分局)의 陰氣(寒氣 / 少陰人의 邪氣)와 상대적으로 小한 膈膜(陽之分局)의 陽氣(熱氣 / 少陰人의 正氣)간의 세력 다툼에서 膀胱(表局)에서 大한 陰氣(寒氣)(少陰人의

邪氣)를 이겨내지 못하는 病證을 太陽病 胃家實證으로, 膈膜(裏局)을 지켜 내는 小한 陽氣(熱氣)(少陰人의 正氣)가 膀胱의 陰氣(寒氣)에 의해 더욱 逼迫되게 되는 病證을 陽明病 脾約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병리적인 도식 하에서 胃家實病은 少陰人의 大한 부위인 表局(膀胱)에서 발생하는 病證으로, 脾約病은 小한 부위인 裏局(膈膜)에서 발생하는 病證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表之表病’과 ‘表之裏病’으로 要約되게 된다.

표 1. 胃家實病과 脾約病의 比較(太陽病과 陽明病)

太陽病 胃家實證 (→鬱狂證)	陽明病 脾約證 (→亡陽證)
表寒振發之力永渴	裏熱撐支之勢已窮
表局 外禦之陽 不足 太陽力屈之病	裏局 內守之陽 不足 陽明勢孤之病
病位 : 表(標) - 膀胱	病位 : 裡(本) - 膈膜
以正犯邪之病	以邪犯正之病

太陽病 厥陰證은 太陽病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아 생긴 變證으로¹⁴⁾, 正邪相爭함이 오래되어 膈膜으로 올라와야 할 陽氣가 머물러 막히게 돼서 이로 인해 膈膜을 통해 外寒을 막아 물리치는 胃氣가 약하게 되고, 이로 인해 大腸으로 내려가는 穀氣가 薄하게 되며 결국 膀胱이 大腸으로 받게 되는 溫氣 또한 微薄하게 되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¹⁵⁾ 이는 病程이 오래되어 裏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며¹⁶⁾, 膀胱에서 일어난 병이 大腸에까지 파급됨

- 10)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28條
“太陽病 表證因在而小腹硬滿之病, 始發於太陽膀胱之陽氣, 不能逐寒氣, 而太陰大腸之氣, 亦不通快而凝結則, 其病爲胃家實而, 危險之勢 終至於潮熱直視也.”
- 11)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26條
“胃家實病形證, 腹滿大便硬發狂者 爲主證. 而其始焉, 身熱汗不出不惡寒也. 若其病尤險則, 澼然微汗出潮熱也. 澼然微汗出潮熱者, 表寒振發之力 永渴故也.”
- 12)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20條
“脾約病形證, 全體有汗人中不汗小便利者 爲主證, 而其始焉, 身熱汗自出不惡寒也. 若其病垂危則, 發熱汗多而惡寒也. 發熱汗多而惡寒者, 裏熱撐支之勢 已窮故也.”
- 13)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32條
“膀胱局外禦之陽不足而 正邪相爭於膀胱之表局者 以正犯邪故惡寒也, 惡寒不作者 正不退邪也 正不退邪者 太陽力屈之病也. 膈膜裏局內守之陽不足而 正邪相爭於膈膜之裏局者 以邪犯正故煩熱也, 煩熱虛張者 邪益逼正也 邪益逼正者 卽陽明勢孤之病也”

- 14)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32條
“太陽病 惡寒汗出則當解而, 惡寒汗出病不盡解而半解者日久當解而不解則, 其病變爲厥陰證也.”
- 15)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55條
“少陰人傷寒病 正邪相爭累日不快則 陽氣之上衛於膈膜者 蹇滯 故胃氣之外以禦寒氣而中以所自立者 亦單弱也. 胃氣單弱則 穀氣之下達於大腸者 亦微薄 故膀胱之受溫氣於大腸 又微薄也”
- 16)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膈病論』 55條
“蓋太陽病厥陰證 正邪相持累日之餘 胃氣單弱而大腸溫氣微薄 故猝然而厥也”

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少陰人內觸胃病論

① 病證分類

舊本에서는 張仲景의 太陰證 自利腹痛과 心下痞를 主證으로 하는 瀉心湯證, 傷寒發黃, 水結胸 및 寒實結胸 등을 하나의 病證(太陰病)으로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印本에서는 張仲景의 太陰證 自利腹痛證과 心下痞를 主證으로 하는 瀉心湯證에 대하여 溫胃而降陰의 治法과 그 治方을 제시하였다. 한편, 傷寒發黃, 水結胸 및 寒實結胸에 대한 내용은 少陰證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다음으로 이동하게 되어 그 편제가 다소 혼란스럽게 된다.

黃疸病을 太陰病의 表裏兼病으로, 陰毒證을 풀리지 않고 오래된 太陰病의 變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黃疸病에 대한 내용은 印本에서 少陰病 설명 다음으로 이동하게 된다.

少陰病을 설명하며 藏厥證, 下利清水證, 陰盛隔陽證, 乾霍亂關格病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다. 印本에서 太陰證의 범주로 설명된 乾霍亂關格病은 舊本에서는 少陰病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舊本에서 少陰病의 한 예로 제시되었던 것이 印本에 와서 太陰病의 범주(太陰病의 重證)로 재해석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印本에서는 少陰病에 대하여 ‘健脾而降陰’의 治法과 治方이 새롭게 제시되게 된다.

② 病理說明

少陰人 裏病의 病理機轉은 小한 胃와 大한 大腸과의 관계로서 설명되고 있다.

太陰病은 臍腹部의 大腸으로 下達하는 胃氣가 虛弱하게 되어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였다.¹⁷⁾ 太陰病 범주에 속하는 黃疸은 처음에는 太陰大腸으로 내려가는 胃氣가 冷氣를 물리쳐 내지 못하였다가 太陽膀胱之氣 또한 通快하지 못하고 凝結하게 되어 黃疸病이 된다고 하여 太陰病에서 발전한 表裏兼病의 病證으로 설명하였다.¹⁸⁾ 太陰病과 黃疸病을 비교함

에 있어 太陰病은 “食物蹇滯而一二三日內 新氣添積漸得快健則, 終能變革消化下利之證也.”라 하였고, 黃疸病은 “食物蹇滯而歷三四日至五六七日, 新氣雖則添積漸不快健, 終不變革消化下利之證也.”이라 하여 ‘消化下利之證’으로의 變革되는 여부로 구분하였다.

표 2. 胃家實病과 黃疸病의 比較

胃家實病	黃疸病
太陽病 表證因在而小腹硬滿之病	太陰病 腹滿食不下而表氣壅遏之病
太陽膀胱之陽氣 不能逐寒氣	太陰大腸之胃氣 不能逐冷氣
太陰大腸之氣 亦不通快而凝結	太陽膀胱之氣 亦不通快而凝結
↓ 胃家實 ↓ 潮熱直視	↓ 黃疸 ↓ 入腹喘滿

太陰病 陰毒證은 表病의 太陽病 厥陰證과 유사한 病證으로¹⁹⁾ 腹痛下利가 다 풀리지 않고 시일이 오래 되어 된 變證으로²⁰⁾, 表裏兼病 단계의 病證이다.

少陰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胸膈胃中을 안으로 지켜 내는 胃氣가 虛弱한데다가 冷氣가 안으로 침범하여 下利가 그치지 않는 病證이라 하였다.²¹⁾ 즉 臍腹部의 大腸으로 下達하는 胃氣가 虛弱하여 발생한 太陰病보다 더 심하여 胸膈의 胃中을 지켜 내지 못하고 大腸으로부터 올라온 冷氣까지 內侵하게 되는 病證이다. 少陰病의 예로 藏厥證, 下利清水證, 陰盛隔陽證, 直中陰經乾霍亂關格病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陰盛隔陽證을 설명함에 있어 表病

“太陰病 腹滿食不下而表氣壅遏之病, 始發於太陰大腸之胃氣, 不能逐冷氣, 而太陽膀胱之氣 亦不通快而凝結則 其病爲黃疸而 危證之勢 終至入腹喘滿也.”

19)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32條

“太陰病之有陰毒證, 猶太陽病之有厥陰證也.”

20)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31條

“少陰人 食滯下利表氣陰寒之證 半下半滯日久不解而變爲此證也.”

21)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48條

“少陰人 內守胸膈胃中之胃氣虛弱 冷氣內侵 下利不止之證”

17)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胃病論』 13條

“少陰人 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18)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外感胃病論』 28條

의 發熱汗多證이 膈氣가 장차 絶하려고 하는 징후인 것처럼 胃氣가 장차 絶하려고 하는 징후라고 설명하였다.²²⁾

太陰病과 少陰病을 比較하면 <표 3>과 같다. 少陰人에 있어 상대적으로 大한 大腸의 冷氣(少陰人의 邪氣)와 상대적으로 小한 胃中의 胃氣(少陰人의 正氣)간의 세력 다툼에서 胃에서 大腸으로 下達하는 胃氣(穀氣 / 溫氣)가 虛弱하나 아직은 大腸의 冷氣를 밀치고 내려갈 수 있는 病證을 太陰病으로, 胸膈胃中을 지켜 내는 胃氣(少陰人의 正氣) 자체가 虛弱한 데다 大腸의 冷氣마저 內侵하게 되는 病證을 少陰病으로 설명하고 있다. 병리적인 도식 하에 太陰病은 少陰人의 大한 부위인 表局(大腸)에서 발생하는 病證으로, 少陰病은 小한 부위인 裏局(胃)에서 발생하는 病證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²³⁾, 이는 각각 ‘裏之表病’과 ‘裏之裏病’으로 要約되게 된다.

표 3. 太陰病과 少陰病의 比較

太陰病	少陰病
下達膈腹大腸之胃氣虛弱	內守胸膈胃中之胃氣虛弱 冷氣內侵
病位：表(標) - 大腸	病位：裡(本) - 胃
以正犯邪之病	以邪犯正之病

(3) 少陰人膈胃病篇尾泛論

印本에서 少陰人裏病論으로 이동하게 되는 少陰人 藏結病에 관한 내용 3條를 빼고는 그 내용이印本の 少陰人泛論과 동일하다.

2. 少陽人病論

(1) 少陽人外感膀胱病論

① 病證分類

傷寒論 大青龍湯證을 ‘少陽人外感表證’이라고 하여 ‘發熱惡寒而寒多者’와 ‘發熱惡寒而熱多者’로 구분하였다. 이를 印本에서는 ‘少陽人脾受寒表寒病’이라고 하였는데 寒熱多少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22)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63條

“陰盛隔陽 胃氣將絕之候. 發熱汗多 膈氣將絕之候”

23) 이를 각각 ‘大腸之泄瀉’와 ‘胃中之泄瀉’로 표현하게 된다.

傷寒論의 桂麻各半湯證과 桂婢各半湯證을 ‘發熱惡寒熱多寒少而身痒者’로 요약하여 大便通不通 여부에 따라 각각 治方을 제시하였는데, 印本에서는 이 내용이 裏病論으로 이동하게 된다.

傷寒論의 小柴胡湯證의 治方으로 小柴胡湯 대신에 荊防敗毒散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등을 제시하였다. 印本에서는 이에 대하여 ‘清裏熱而降表陰’이라는 治法과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의 治方을 제시하게 된다.

傷寒論의 十棗湯證과 陷胸湯證 五苓散證(水逆證) 등을 結胸證으로 요약하고 治方으로 甘遂治法과 柴胡瓜蒌湯을 제시하였으며 燥渴譫語時에는 白虎湯과 合方하여 쓴다고 하였다. 印本에서는 結胸證의 治方으로 荊防導赤散(或加 茯苓 澤瀉) 甘遂治法 등을 제시하였다.

李子建의 腹痛泄瀉證과 朱震亨의 柴苓湯證 등을 예로 들며 少陽人의 腹痛泄瀉證(有一種腹痛隱隱深着屢痛屢泄, 或但痛不泄者)을 重險證으로 보았고 그 治方을 제시하였으며, 腹痛이 있는 가운데 泄瀉의 有無로서 病의 輕重을 나누었다. 印本에서는 이를 少陽人 亡陰證이라 이름하여 그 병리적인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身熱頭痛亡陰’과 ‘身寒腹痛亡陰’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治方을 달리 제시하였다. 또한 李濟馬 63세 때인 己亥年에 있었던 少陽人 亡陰證 治驗例(荊防地黃湯 治驗例)를 제시하게 된다.

② 病理說明

少陽人病證의 病理機轉은 少陰人病證과 같은 구도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단 少陰人과는 반대로 上下之表裏에 있어 少陽人의 大한 부위인 膈膜이 表局이 되고, 小한 부위인 膀胱이 裏局이 됨을 유추할 수 있겠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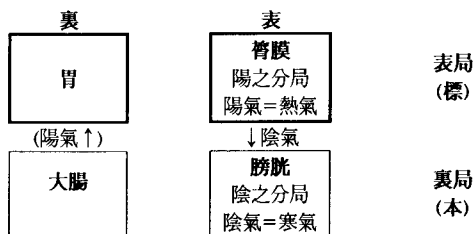


그림 2. 少陽人 病理機轉의 基本構造

우선, 表病은 少陽人의 상대적으로 大한 膈膜(陽之分局)의 陽氣(熱氣)와 상대적으로 小한 膀胱(陰之分局)의 陰氣(寒氣)간의 세력 다름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少陽傷風證을 설명하는데 있어 膈膜에서 膀胱으로 下降하여야 하는 陰氣가 상대적으로 大한 膈膜(陽之分局, 陽氣=熱氣)의 熱邪에 막힌 바 되어 膈間에 凝聚하게 되는 證象이라 설명하였다.²⁴⁾

結胸證은 表氣陰陽이 虛弱하고 正邪相爭함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裏氣 또한 秘澁不和하여 생긴다고 하였다.²⁵⁾ 少陰人 少腹硬滿證이 膈間으로 올라가야 할 陽氣가 올라가지 못하고 膀胱에 困하게 되어 ‘外熱包裏冷’의 證象을 만드는 것처럼, 少陽人 心下結胸證은 膀胱으로 내려가야 할 陰氣가 내려가지 못하고 膈間에 困하게 되어 ‘外冷包裏熱’의 證象을 만드는 것이라 설명하였다.²⁶⁾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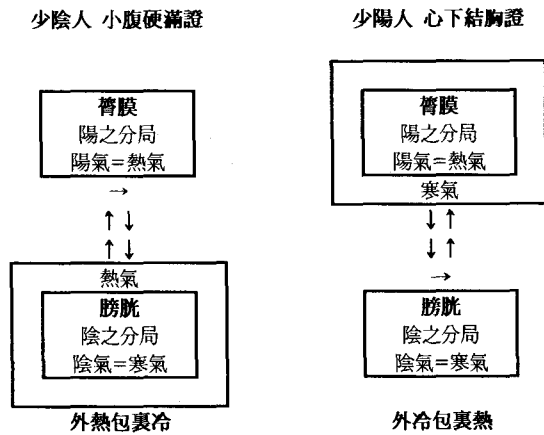


그림 3. 少陰人小腹硬滿證과 少陽人 心下結胸證

- 24)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外感膀胱病論』 11條
“少陽人膀胱下降之陰氣 爲熱邪所塞, 未達下降, 凝聚膈間膠固囚滯之證也”
- 25)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外感膀胱病論』 20條
“表氣陰陽虛弱, 正邪相爭, 累日不決之中, 裏氣亦秘澁不和而變生此證也”
- 26)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外感膀胱病論』 20條
“少陰人病 膈間陽氣 未達上升而困於膀胱則, 其人如狂之證作而, 外熱包裏冷小腹生此病也. 少陽人病 膀胱陰氣 未達下降而困於膈間則, 口苦咽乾目眩之證作而, 外冷包裏熱心下生此病也.”

印本の 亡陰證에 해당하는 腹痛泄瀉證(有一種腹痛隱隱深着屢痛屢泄, 或但痛不泄者)은 膀胱의 內守하는 眞陰(少陽人의 正氣)이 虛弱한데다가 膈膜의 熱氣가 相迫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⁷⁾ 이는 少陽傷風證이나 結胸病이 커져있는 膈膜의 熱氣가 문제가 되는 것임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膀胱의 寒氣가 더욱 적어지고 逼박받게 되는 證象임을 유추할 수 있겠다.

少陽傷風證 및 結胸證과 腹痛泄瀉證을 比較하면 <표 4>와 같다. 少陽人에 있어 상대적으로 大한 膈膜(陽之分局)의 陽氣(熱氣 / 少陽人의 邪氣)와 상대적으로 小한 膀胱(陰之分局)의 陰氣(寒氣 / 少陽人의 正氣)간의 세력 다름에서 膈膜(裏局)에서 상대적으로 大한 陽氣(熱氣)를 이겨내지 못하는 病證을 少陽傷風證 및 結胸證으로, 상대적으로 小한 膀胱(表局)을 지켜 내는 眞陰이 부족한데다 膈膜의 熱氣마저 침범하여 이를 逼迫하게 되는 病證을 腹痛泄瀉證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병리적인 도식 하에 少陽傷風證 및 結胸證은 少陽人의 大한 部位인 表局(膈膜)에서 발생하는 病證으로, 腹痛泄瀉證은 小한 部位인 裏局(膀胱)에서 발생하는 病證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表之表病’과 ‘表之裏病’으로 要約되게 된다.

표 4. 少陽傷風證 · 結胸證과 腹痛泄瀉證의 比較

少陽傷風證 / 結胸證	腹痛泄瀉證
膀胱下降之陰氣爲熱邪所塞 未達下降 凝聚膈間	膀胱內守之眞陰虛弱 熱氣相迫
病位: 表(標) - 膈膜	病位: 裏(本) - 膀胱
以正犯邪之病	以邪犯正之病

(2) 少陽人內觸大腸病論

① 病證分類

張仲景의 猪苓湯證 白虎湯證(三陽合病), 朱肱의 陽厥證 및 陽毒發斑證 등을 하나로 요약하여, 그 治方으로 白虎湯類를 제시하였고, 이를 ‘少陽人大腸病胸膈熱證’이라 하였으며, ‘大便過一晝夜有餘(大腸病初證), 胸煩悶燥, 引飲小便赤, 揚手躓足, 譫語, 舌卷動風, 纏喉風唇腫背癰腦疽, 流注丹毒發斑陽毒咽喉黃

27)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外感膀胱病論』 28條

“膀胱內守之眞陰虛弱, 熱氣相迫”

疽面目口鼻牙齒之病’ 등을 그 증상으로 제시하고, ‘寒多熱少之病’·‘熱多寒少之病’·‘但熱無寒之病’·‘譫語之病’ 등으로 輕重을 구분하였다. 또한 傷寒發狂譫語證에 대한 白虎湯 治驗例과 陽毒發斑에 대한 石膏 治驗例을 제시하였는데 이 두 治驗例은 印本에서는 表病論 後尾部로 이동하게 된다. 印本에서는 張仲景의 猪苓湯證과 白虎湯證의 治方으로 猪苓車前子湯과 地黃白虎湯을, 朱肱의 陽厥證에 대한 治方으로 地黃白虎湯을 제시하였고, 陽毒白虎湯을 쓰게 되는 陽毒發斑證에 대한 언급은 빠지게 된다.

消渴病을 ‘少陽人 陰虛火動胃熱肉爛之病’이라 요약하고 中消를 主證, 上消를 中消의 初證, 下消를 中消의 末證, 面目口鼻咽喉牙齒之病을 中消의 變證, 癰疽強中之病을 中消의 危證이라고 설명하였다. 印本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清陽上升’ 정도에 따라 그 輕重이 달라진다는 병리설명을 제시하면서 上消, 中消, 下消에 대한 治方을 달리하였는데 특히 下消治方이 새롭게 제시되게 된다.

王好古의 盜汗證, 東醫醫方類聚의 病證例(夫渴者數飲水 其人 必頭面眩 背寒而嘔), 龔信的 陰虛證 등을 ‘少陽人 陰虛火動大腸熱骨蒸之病’으로 요약하였다. 이에 대하여 印本에서는 王好古의 盜汗證을 上消의 범주로 달리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東醫醫方類聚의 病證例과 龔信的 陰虛證을 表裏陰陽이 모두 虛損한 陰虛午熱證으로 구분하며, 下消와 같은 정도의 病證으로 설명하게 된다.

② 病理說明

裏病의 病理機轉은 少陽人의 상대적으로 大한 胃의 熱氣와 상대적으로 小한 大腸의 寒氣간의 세력 다툼으로 설명되고 있다.

少陽人 大腸病 胸膈熱證(白虎湯類를 쓰는 病證)을 설명하는데 있어, ‘譫語之病’, ‘但熱無寒之病’, ‘熱多寒少之病’, ‘寒多熱少之病’으로 나누어 病의 重한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²⁸⁾, 여기서의 熱은 胃中の 熱氣

(少陽人의 邪氣)이고 寒은 大腸의 寒氣(少陽人의 正氣)로 사료되며 그 세력의 다소로서 病의 輕重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寒多熱少之病은 大便을 三晝夜 동안 不通하여야 비로소 危險하지만, 譫語之病은 大便을 단 하루를 못 보더라도 危險한 것이라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大한 胃中の 熱氣가 지나치게 되어, 譫語의 증상까지 생기게 되면 실로 危重한 것이다. 傷寒譫語證은 但熱無寒之病보다 더 위중하게 된 것으로 大腸의 寒氣(少陽人의 正氣)가 아주 빠른 속도로 소모되어 거의 없어진 상태로 유추할 수 있겠다.

消渴病은 ‘陰虛火動胃熱肉爛之病’이라 하여 大腸의 陰氣(寒氣)가 상대적으로 虛한 상태에서 胃中の 熱氣가 盛하여 발생한 病證으로 설명하였다.

陰虛午熱證은 ‘陰虛火動大腸熱骨蒸之病’이라 하여 大腸의 陰氣(寒氣)(少陽人의 正氣)가 虛하고, 胃의 熱氣(少陽人의 邪氣)가 大腸에까지 침범하게 되어 발생한 病證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下消強中을 胃火肉爛之久病으로, 陰虛午熱을 大腸火骨蒸之新病이라 하여 그 病證의 新久를 논하고 있다.

消渴病과 傷寒譫語證 및 陰虛午熱證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胸膈熱證·消渴病과 傷寒譫語證·陰虛午熱證과의 比較

胸膈熱證(急病) 消渴病(緩病)	傷寒譫語證(急病) 陰虛午熱證(緩病)
寒多熱少, 熱多寒少 陰虛火動胃熱肉爛之病	但熱無寒 陰虛火動大腸熱骨蒸之病
病位: 表(標) - 胃	病位: 裡(本) - 大腸
以正犯邪之病	以邪犯正之病

少陽人에 있어 상대적으로 大한 胃中(陽之分局)의 熱氣(少陽人의 邪氣)와 상대적으로 小한 大腸(陰之分局)의 寒氣(少陽人의 正氣)간의 세력 다툼에서 胃中에서 상대적으로 大한 熱氣가 大腸의 寒氣보다 더욱 커져 발생한 病證을 消渴病으로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小한 大腸을 지켜 내는 眞陰(寒氣 / 少陽人의 正氣)이 거의 없어지고 胃中の 熱氣만 熾盛한 것을 傷寒譫語證으로, 大腸의 寒氣가 부족하여진 상태에서 胃의 熱氣(少陽人의 邪氣)가 大腸에까지 침범하여 이를 더욱 逼迫하게 되는 病證을 陰虛午熱證으로 설명하고 있다. 傷寒譫語證과 陰虛午熱證

28)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內觸大腸病論』 6條
“寒多熱少之病, 大便至三晝夜而不通則危畏也. 熱多寒少之病, 大便過二晝夜而不通則危畏也. 但熱無寒之病, 大便未及兩晝一夜而危畏也. 譫語之病, 大便纔過一晝夜而危畏也.”

을 모두 以邪犯正之病이라 할 수 있는데, 傷寒論語證은 急迫한 病證으로 陰虛午熱證은 緩慢한 病證으로 그 緩急을 논할 수 있겠다.

또한 병리적인 도식 하에 胸膈熱證(急)과 消渴病(緩)은 少陽人의 大한 部位인 表局(胃)에서 발생하는 病證으로, 傷寒論語證(急)과 陰虛午熱證은 小한 部位인 裏局(大腸)에서 발생하는 病證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裡之表病’과 ‘裡之裡病’으로 要約되게 된다.

(3)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少陽人泛論은 이상의 少陰人病論과 少陽人病論을 요약·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少陰人 表裏病證과 少陽人 表裏病證을 요약하여 比較하였고, 少陽人 表裏病을 다시 재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少陰人·少陽人表裏病 要約 (表裏之表裏病論)

少陰人의 保命之主는 陽暖之氣, 少陽人의 保命之主는 陰淸之氣가 되고, 少陰人은 膈·胃가 本, 膀胱·大腸이 標, 少陽人은 膀胱·大腸이 本, 膈·胃가 標가 된다고 하여 각각 小한 部位를 ‘本’, 大한 部位를 ‘標’로 설정하고 있다.²⁹⁾ 여기서 언급되는 ‘標’와 ‘本’은 上下之表裏의 ‘表裏’와 통하여 ‘標’에 해당하는 部位가 ‘表局’이 되고, ‘本’에 해당하는 部位가 ‘裏局’이 된다고 유추할 수 있겠다.

少陰少陽人의 表裏病의 主證을 서로 상대적으로 要約說明하였으리라³⁰⁾, 表裏病 각각을 다시 表裏로 나누어 病證을 요약하고 있는데³¹⁾ 이는 <표 6>과 같다.

29)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3條

“少陰人 以陽暖之氣 爲保命之主 故膈胃爲本而膀胱大腸爲標也。少陽人 以陰淸之氣 爲保命之主 故膀胱大腸爲本而膈胃之爲標也。”

30)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4條

“少陰人表病 身熱爲主證 少陽人表病 身寒爲主證。少陰人裏病 腹寒爲主證 少陽人裏病 腹熱爲主證”

31)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1條 2條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陽明病, 卽少陰人之表病也。太陰少陰病, 卽少陰人之裏病也而, 太陽病 表之表病也, 陽明病 表之裏病也, 太陰病 裏之表病也, 少陰病 裏之裏病也。張仲景所論 大青龍湯證小柴胡湯證 卽少陽人表之表病也, 李子建所論 腹痛泄瀉證 卽少陽

표 6. 少陰人·少陽人의 表裏之表裏病 (1)

	表病		裏病	
	表之表病	表之裏病	裏之表病	裏之裏病
少陰人	太陽病	陽明病	太陰病	少陰病
	身熱		腹寒	
少陽人	大青龍湯證 小柴胡湯證	腹痛泄瀉證	上消中消下消證	傷寒論語證 陰虛午熱證
	身寒		腹熱	

결국, 表病과 裏病의 구분에 있어 表病은 人體의 後面部(膈·膀胱)에서 발생한 病證으로, 裏病은 人體의 前面部(胃·大腸)에서 발생한 病證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表之表病과 裏之表病은 少陽少陰人의 標部位(大한 部位)에서 발생한 以正犯邪之病(正氣가 邪氣에 의해 逼迫받고 있으나 아직은 正氣가 有餘한 상태)에 해당하는 病證으로, 表之裏病과 裏之裏病은 本部位(小한 部位)에서 발생한 以邪犯正之病(正氣 자체가 不足하고, 邪氣에 의해 크게 侵犯당한 상태)에 해당하는 病證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표 7>

표 7. 少陰人·少陽人의 表裏之表裏病 (2)

	表病		裏病		保命之主
	表之表病	表之裏病	裏之表病	裏之裏病	
少陰人	膀胱	膈	大腸	胃	陽暖之氣
	寒氣↑>熱氣	寒氣>熱氣↓	寒氣↑>熱氣	寒氣>熱氣↓	
少陽人	膈	膀胱	胃	大腸	陰淸之氣
	寒氣<熱氣↑	寒氣↓<熱氣	寒氣<熱氣↑	寒氣↓<熱氣	
	以正犯邪之病	以邪犯正之病	以正犯邪之病	以邪犯正之病	

② 少陽人 病證 要約

少陽人 表裏病證의 大綱을 다시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는데³²⁾ 그 내용은 <표 8>과 같다.

人表之裏病也, 王好古所論 上消中消下消證 卽少陽人裏之表病也, 張仲景所論 傷寒論語證 與龔信所論 陰虛午熱證 卽少陽人裏之裏病也.”

32)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

표 8. 少陽人の 表裏之表裏病

表病		裏病	
表之表病	表之裏裏	裏之表病	裏之裏病
浮腫 喘促 結胸 寒熱往來胸脇滿 發熱惡寒身體痛	中風 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	消渴 癰疽	陰虛午熱 傷寒譫語

이중에서 少陽人の 稟性軟弱者에게는 裏之裏病인 陰虛午熱證이 많고, 稟性剛急한 자는 表之裏病인 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證이 많다고 하여 稟性的 剛弱의 차이에 따라 多有하는 病證이 다름을 말하였다.³³⁾ 또한 이를 병리적으로 少陽人の 性情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稟성이 軟弱하면 衰心(少陽人の 情氣)이 偏着하여 大腸之眞陰이 剝傷하게 된다고 하였고, 稟성이 剛急하면 怒心(少陽人の 性氣)이 偏復하여 膀胱之眞陰이 剝傷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⁴⁾ 裏之裏病과 表之裏病은 喜怒哀樂의 성정이 眞氣를 손상하게 된 것이라 하였는데³⁵⁾, 이는 少陽人の 상대적으로 小한 部位인 大腸과 膀胱(少陽人の 本)의 眞陰(正氣로서의 陰氣 寒氣)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險危에 속하는 病證이며 그 원인도 평소 稟성이 그러하여 오랜 시일을 두고 성립하게 되는 病證인 것이다. <표 9>

篇尾泛論』

10條, 11條, 12條, 13條

“少陽人 裏之裏病大綱有二, 一曰 陰虛午熱也, 二曰 傷寒譫語也. 裏之表病大綱有二, 一曰 消渴也, 二曰 癰疽也. 表之裏病大目有五, 一曰 中風, 二曰 吐血, 三曰 嘔吐, 四曰 腹痛, 五曰 食滯痞滿. 表之表病大目有五, 一曰 浮腫, 二曰 喘促, 三曰 結胸, 四曰 寒熱往來胸脇滿, 五曰 發熱惡寒身體痛.”

33)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14條

“少陽人 稟性軟弱者, 多有陰虛午熱之證, 稟性剛急者, 多有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之證, 此心疾也, 雖有其藥, 最爲難治.”

34)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15條

“稟性軟弱則衰心偏着也. 衰心偏着則大腸之眞陰剝傷也. 稟性剛急則怒心偏復也. 怒心偏復則膀胱之眞陰剝傷也.”

35)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26條

“裡之裡病表之裡病則, 喜怒哀樂之內傷眞氣者, 爲主證故, 實難專恃其藥力而, 可以全恃其調養也.”

표 9. 少陽人の 稟性和 多有病證

稟性剛急者	稟性軟弱者
怒心偏復	衰心偏着
膀胱之眞陰剝傷	大腸之眞陰剝傷
多有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之證	多有陰虛午熱之證

또한 表之表裏病을 설명하는데 있어, 表之裏病인 中風吐血之病은 膀胱眞陰이 剝傷不支하여 膈膜으로 上逆하게 된 病證이고, 表之表病인 浮腫喘促之病은 膈膜淸氣가 凋殘不壯하여 膀胱으로 도달치 못하는 病證이라 하였다.³⁶⁾ 즉 浮腫喘促之病은 膈膜의 熱氣로 인하여 膀胱으로 내려와야 하는 氣운(淸氣)이 사그라들어 내려오지 못하는 病證으로(以正犯邪之病에 속함), 中風吐血之病은 膀胱의 眞陰(正氣로서의 陰氣)이 손상되어 되는 病證으로(以邪犯正之病에 속함)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中風吐血之屬은 ‘不可不豫治早治’하여야 하고, 浮腫喘促之屬은 ‘不可不急治必治’한다고 하였다.

3. 太陰人病論

舊本에서 印本으로 오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부분으로 表裏病의 病證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舊本에서는 表裏之 表裏病을 <표 10>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表裏之 表病은 ‘氣勢緩而易治’라 하고, 表裏之 裏病은 ‘氣勢急而難治’라 하여 그 輕重緩急을 논하였다.³⁷⁾ 舊本의 表之表病과 裏之表病은 印本의 表病으로, 表之裏病과 裏之裏病은 印本의 裏病으로 재편이 되고 그 處方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한편 少陰 少陽人 病論에 비해 그 病理의인 설명은 거의 없다.

36)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三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31條

“中風吐血之病 膀胱眞陰剝傷不支而 上逆膈膜之病也. 浮腫喘促之病 膈膜淸氣凋殘不壯而 未達膀胱之病也. 中風吐血之屬 不可不豫治早治. 浮腫喘促之屬 不可不急治必治”

37)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四 太陰人內觸胃腕病論』 9條

“太陰人 惡寒發熱長感病 爲表之表病, 陽毒燥澀 爲表之裏病, 腹痛自利食滯痞滿痢疾浮腫 爲裏之表病, 虛勞夢泄與無腹痛中風 爲裏之裏病. 表裏之表病, 氣勢緩而易治, 表裏之裏病, 氣勢急而難治.”

표 10. 太陰人의 表裏之表裏病

表病		裏病	
表之表病	表之裏病	裏之表病	裏之裏病
惡寒發熱長感病	陽毒燥澁	腹痛自利 食滯痞滿 痢疾浮腫 有腹痛中風	虛勞夢泄 無腹痛中風

太陰人의 保命之主는 呼散之氣, 太陽人의 保命之主는 吸聚之氣가 되고, 太陰人은 腦髓·胃脘이 本, 腰脊·小腸이 標, 太陽人은 腰脊·小腸이 本, 腦髓·胃脘이 標가 된다고 하여 각각 小한 部位를 ‘本’, 大한 部位를 ‘標’로 설정하고 있다.³⁸⁾ 太陰人의 表裏之表裏病도 少陰人·少陽人처럼 保命之主와 標本部位의 關係로 설명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 太陰人外感腦髓病論

太陰人 外感腦髓病論의 病證 분류는 <표 11>과 같다.

표 11. 太陰人 表病證

		病證	舊本
表之表病		外感表病輕證	麻黃發表湯
		寒厥證	葛根解肌湯 +熊膽(升麻開腦湯) 晝-桔梗生脈散 夜-葛根解肌湯
表之裏病		陽毒證	葛根解肌湯 黑奴丸 加減解肌湯 皂角大黃湯
	瘧病	日疼鼻乾增寒壯熱燥澁	葛根解肌湯 天門冬潤肺湯
		頭面項頰赤腫	皂角大黃湯
	體熱腹滿自利 (外感內觸表裏俱病 最爲危證)	桔梗生脈散	

38)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四 太陰人內觸胃脘病論』 8條

“太陰人 以呼散之氣 爲保命之主故, 腦髓 胃脘爲本而 腰脊小腸爲標. 太陽人 以吸聚之氣 爲保命之主故, 腰脊小腸爲本而 腦髓 胃脘爲標.”

張仲景의 麻黃湯證을 ‘太陰人 外感表病 輕證’이라 하며 治方으로 麻黃發表湯을 제시하였으며, 桂麻各半湯證이 病證例 없이 處方만을 제시하면서 대신 葛根解肌湯을 쓸 것을 말하였다³⁹⁾.

寒厥證을 설명하면서 汗의 진퇴를 耳後高骨 → 額上 → 顙上 → 項上 → 背間의 순서로 제시하였는데⁴⁰⁾, 印本에서는 耳後高骨 → 髮際 → 額上 → 眉稜 → 顙上 → 脣頤 → 胸臆의 순서로 제시하였고⁴¹⁾, 治方이 寒多熱少湯 熊膽散으로 제시되어 그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된다.

陽毒證을 表病으로 분류하였는데, 印本에서는 裏病論으로 이동하게 되며 治方도 葛根解肌湯 등이 제시되게 된다.

瘧病을 表病으로 분류하며 目疼鼻乾增寒壯熱燥澁者와 頭面項頰赤腫者로 나누어 治方을 제시하였고, 體熱腹滿自利者는 外感內觸表裏俱病이라 하여 가장 危證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體熱’의 증상은 表病의 증상이고 ‘腹滿自利’는 裏病의 증상이므로 表裏俱病이라 한 것으로 사료된다. 印本에서는 이상의 瘧病에 대한 내용이 裏病論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 인식이 더욱 구체화되어 肝熱熱證瘧病과 胃脘寒證瘧病으로 나누어 각각 裏病과 表病으로 분류하게 되고 그 治法 治方도 각각 달리 제시되게 된다.

(2) 太陰人內觸胃脘病論

腹痛自利病, 食滯痞滿腿脚無力病, 下痢膿血病, 腹脹浮腫病, 腹痛下利 舌卷不語中風病, 無腹痛下利 而有舌卷不語中風病, 夢泄病 등을 제시하였고 그 治方을 <표 12>와 같이 제시하였다.

39) 印本에서는 桂麻各半湯의 處方內容만이 ‘張仲景傷寒論中太陰人病經驗設方藥四方’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40)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四 太陰人外感腦髓病論』 7條

“太陰人汗 始發於耳後高骨而大通於背間脊上. 耳後之微汗 目前免死也, 額上之汗 始免死也, 顙上之汗 快免危也, 項上之汗 病解也, 背間之汗 病大解也.”

41)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

“大凡 太陰人汗 始自耳後高骨 面部髮際 大通於胸臆間而 病解也 髮際之汗 始免死也 額上之汗 僅免危也 眉稜之汗 快免危也 顙上之汗 生路寬闊也 脣頤之汗 病已解也 胸臆之汗 病大解也.”

표 12. 太陰人 裏病證

太陰人一證		治方
裏之表病	有腹痛自利病	桔梗生脈散 黃栗禱根皮湯
	有食滯痞滿腿脚無力病	桔梗生脈散 黃栗禱根皮湯
	有下痢膿血病	桔梗禱根皮丸
	有腹脹浮腫病	黃栗五味子膏
	有腹痛下利 舌卷不語中風病	桔梗生脈散 調服麝香
裏之裏病	無腹痛下利 而有舌卷不語中風病	牛黃 清心山藥湯 清心蓮子湯
	有夢泄病	清心山藥湯 清心蓮子湯加龍骨

이중 腹痛自利食滯痞滿痢疾浮腫 및 有腹痛中風은 裏之表病으로, 虛勞夢泄 및 無腹痛中風은 裏之裏病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印本에서는 腹痛自利病的 언급은 없는 대신 泄瀉病이라 하여 太陰調胃湯(表寒證泄瀉) 葛根蘿蔔子湯(表熱證泄瀉)을 제시하였고, 食滯痞滿腿脚無力病에 대한 治方으로 拱辰黑元丹 鹿茸大補湯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등을 제시하였다. 浮腫病은 表裏개념이 구체화되어 表證寒多者和 裏證熱多者로 나뉘어져 處方이 다르게 제시되게 된다. 下痢膿血病에 대한 언급은 印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상은 印本에서 裏病論 말미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太陰人 泛論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며 또한 表病 範疇의 病證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타 中風을 腹痛의 有無에 따라서 裏之表病과 裏之裏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⁴²⁾, 한편 無腹痛中風과 夢泄病에 대한 治方으로 清心蓮子湯이 熱多寒少湯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清心蓮子湯이 차지하던 역할이 熱多寒少湯의 등장으로 도태되어 印本에서는 단지 新定方 내에만 소개된 것으로 사료된다.

(3) 太陰人 病理說明에 대한 假定

太陰人 病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病證 분류에 대한 기준은 본문에 언급된 바가 없다. 少陰人和 少陽人의 병리설명은 脾局(胃, 膈膜)과 腎局(大腸, 膀

胱)간의 寒熱의 세력관계 및 그 升降의 기전으로 설명된다. 이에 반하여 太陰人의 병리는 保命之主가 吸聚之氣라는 것과, 肺局(胃脘, 腦髓)과 肝局(小腸, 腰脊)의 標本관계 및 內外관계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유추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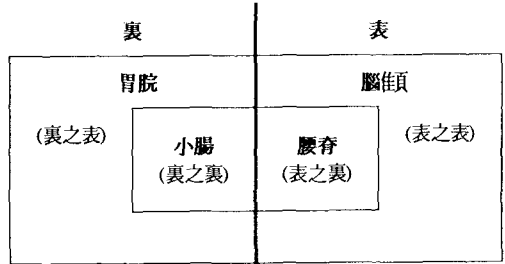


그림 3. 太陰人 病理機轉의 基本構造

人體의 前後面을 表裏로 나누고, 각각의 內外關係 하에 表裏之表裏를 설정할 수 있겠다. 병리적인 도식 하에 表之表病은 腦髓, 表之裏病은 腰脊, 裏之表病은 胃脘, 裏之裏病은 小腸에서 이루어지는 정황으로 사료되며, 이것이 印本에서는 새롭게 表裏之表病이 表病으로 表裏之裏病이 裏病으로 재편된 것으로 사료된다.(단, 이상의 설명은 少陰少陽人의 표리관계와 서로 반대가 된다.)

이상의 太陰人 病證에 대한 병리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結 論

1. 舊本의 少陰人和 少陽人 病證分類는 印本과 대부분 同一하다.
2. 少陰少陽人 病證의 病理機轉에 있어 表病은 人體의 後面部(膈·膀胱)에서 발생한 病證으로 膈膜의 陽氣(熱氣)와 膀胱의 陰氣(寒氣)간의 세력 다름으로서, 裏病은 人體의 前面部(胃·大腸)에서 발생한 病證으로 胃中의 胃氣(熱氣)와 大腸의 寒氣간의 세력 다름으로서 설명되어 진다.
3. 少陰少陽人의 表裏之表病은 標부위(大한 部位)에서 발생한 '以正犯邪之病'(正氣인 保命之主가 邪

42)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四 太陰人內觸胃脘病論』 10條

“太陰人 中風有二證, 有腹痛中風 裏之表病也. 無腹痛中風 裏之裏病也.”

氣에 의해 逼迫받고 있으나 아직은 有餘한 상태)으로, 表裏之裏病은 本부위(小한 部位)에서 발생한 ‘以邪犯正之病’(正氣 자체가 不足하고, 邪氣에 의해 크게 侵犯당한 상태)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太陰人의 病證分類에 있어 舊本의 表裏之表病은 印本의 表病으로, 表裏之裏病은 裏病으로 재편되게 된다.
5. 太陰人의 表裏之表裏病은 保命之主와 標本의 구도 속에서, 內外관계로 설명되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1901年版(初版本) 影印本. 四象醫學會刊行. 서울:대성문화사. 1998.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刊行. 서울:한문화사. 2000.
3. 전국한외과대학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집문당. 1997.